

EUNSEOK CHURCH MATHETES

주가 알아보시고

신용식

초라하고
볼품없어
알아주지 않아도

아름답지 못하고
좋은 향기 없어
외면당해도

약하고
쓸모없어
버림받아도

못나고
능력 없어
두시 되어도

주가
알아보시고
찾아오시네.

제24권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나라(사55:8)

47

2016.11.20

은 석 교 회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 421-9049 010-3323-9049

<http://www.onlycross.net>

성전의 법

겔 43:6-12

신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교훈적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하여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을 교훈적 가르침으로 접근한다면 그는 성경을 모른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삶에 있어서 교훈이 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훈은 인간으로서 현재보다 더 나은 인격의 존재가 되기에 도움이 되는 조건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훈은 인간의 행동과 삶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성경에서 그러한 교훈을 접하고 계십니까? 그러하다면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는 교훈이라고 하기에는 낫 뜨겁고 부적절한 내용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도무지 도덕적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인 구약 성경에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며, 창녀로 변장해서 사바버지인 유다와 동침한 다발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교훈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보게 함으로써 인간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며 믿음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스라엘이 멸망 받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스라엘처럼 우상 섬기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할까요?

물론 우상을 섬기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이 바로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는 것이며 행하는 것이 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가 말하는 실천들이 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하기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게 되고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구제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로 확증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주지해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가 바로 이 점을 놓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열심에 의한 행함으로 강조하면서 신앙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스겔이 이상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본 것이 사실이다' 는 것을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제발 믿어 달라' 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믿고 순종할 자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발적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세계와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과 정성과 실천이 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 상으로 복을 내리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자 된 자신이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는가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행하심

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주의 말씀처럼 여호와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감으로 성전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예스겔을 데리고 들어가고 예스겔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7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사제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라”** 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처소를 만드시는데 그것이 예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둘 처소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세상을 살피시며 자기를 믿고 섬기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 처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도 필요성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은 내용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지 않았습니. 성전을 하나님이 자신들에

게 함께 하시기 위한 처소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계시는 고정된 공간, 장소로만 바라봤습니다.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열심과 정성을 보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복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취지와 맞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엨 2:20-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거할 처소가 되여라’ 고 말씀하시고 인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힘쓰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처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일에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존재로 전락되면서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려야 할 자신의 몸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세운 것도 자신의 몸을 위해 하나님을 자기 곁에 두고자 하는 발상이었을 뿐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도 이러한 의도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위해 하나님을 자기 곁에 붙들어 두고 자신을 위

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원하는 소원을 이뤄주시고 모든 일이 잘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 것이 오해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할 처소가 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에게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불의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인 것과 처소가 아닌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궁극적으로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인간은 죄로 인한 죽음의 모습 그대로일 뿐입니다. 죄로 인하여 생명의 길로 갈 수 없기에 죽음의 상태 그대로 존재하다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는 자기주장은 무의미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은 최고의 증거가 교회를 다닌 것이지만 하나님은 교회 다닌 것을 믿음의 증거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성전 신약과 같은 뿐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 바치며 제사했지 않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죽은 왕

들의 시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짐작컨대 당시 왕들이 자기를 위해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고 죽은 후에도 성전 옆의 등산에 묻힌 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은 왕들의 시체란 말 자체가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섬기고 성전조차도 자신을 위해 신을 찾는 곳으로 이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10,11절에 **“인자가 나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축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나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인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였을 때 나타나야 할 반응은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고 죄악을 보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실 일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죄악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기 위한 처소가 무엇 때문에 죄악을 드러내고 죄악을 보게 하며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자기 죄악을 보게 됨으로써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처소를 만드는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악의

존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없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부끄러운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은 저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의 설교로는 불가능하며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함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자가 자기 죄악을 알고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곧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곧 복음은 사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거부할 것을 염려하여 복음을 조금 순화시키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복음은 복음 스스로 활동하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역사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결과로 완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믿는다면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존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묵사는 하나님의 뜻만 전달하면 됩니다. 이것이 참된 선지자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박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박혀 있다면 자신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땅의 것으로 판단하고

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저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성전의 법은 이러하나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자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나라”** 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법은 성전이 세워진 산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전이 세워진 곳의 주위가 성전으로 인해서 거룩의 혜택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행했는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성전으로 인해 거룩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전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처소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며 우리의 행함과 실천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 37:26-28절을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전고하고 반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신자는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 부끄러워하며 상한심령으로 주께 나오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이고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롬 8:1-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의 법은 곧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환난

롬 5:1-4

믿음 88강 10. 30일 설교

신자는 인생을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날 일을 모두 미리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들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인생에 대해 답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혼드는 힘든 일이 있다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그 사랑은 결국 자신을 하나님의 뜻하신 곳까지 끌어

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한 인생의 끝도 아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부요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멸망임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환경을 초월하여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담대함은 본인의 의지나 심리상태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

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대함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는 말을 합니다. 환난이 있는 상태에서도 즐거워 한다는 것은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참된 만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그것이 우리를 만족이라는 삶으로 인도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이러한 바울의 말이 사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뿐더러 아예 동의하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세상에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배부름을 얻고 싶어 하고 또 세상 것으로 배불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하늘의 것에 마음이 항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 목말라 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면서 심리적 결핍의 상태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으면 즐겁고 기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건강을 되찾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건강만 찾는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도 않고 행복해 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건강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에 걸린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른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도 건강을 찾게 되면 건강하게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누리고 싶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본연의 실상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경험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참된 만족으로 온전히 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으로 실감하고 느끼고 누리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참된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해도 지금 현재 자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행복에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포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것을 귀한 가치에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바울을 환난 중에도 즐겁게 하는 참된 만족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감을 바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바울의 만족에 동의하며 함께 즐거워 할 수 있는 사람

은 누구일까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도,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 것도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된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롬 5:9-10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진술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그것은 곧 영원한 저주를 뜻합니다. 설령 세상에서 인간이 소원하는 모든 것을 누린다 해도 영원한 저주에 갇혔다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상에 눈을 뜬 신자라면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 받은 일에 마음이 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전환되고 그로 인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만족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롬

5:11)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저주 아래 갇힌 인간에게 세상의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예 된 신자의 세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고 소망을 둔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참된 만족으로 자리하며 그리스도로 즐거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말한 영광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실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끝은 심판이라는 것을 압니다. 비록 지금 세상에서 부요하다 해도 그 또한 잠시 후면 사라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욕망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면 과연 무엇에 소망을 두게 될까요?

신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실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는 화목하게 되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영원한 저주에서 건짐 받을 수 없는 인간의 실존에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했다고 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실력이 아니었고 따라서 우리의 실력으로 가능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천국을 가더라도 내 것 가지고 즐겁게 살다가 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본심인데 그런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라”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모든 것은 주님과 관계에 있을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일에 대해서도 주님과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통, 낙심, 원망, 불평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눈을 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일을 보게 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이루신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에게서 죄를 보지만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것이 자신의 현실임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인해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 날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있기에 환난도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게 됩니다. 환난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더 단단히 붙들어 놓기 위한 간섭의 손길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보다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연단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그 나라가 소망이 되고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것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후 1:3-4절을 보면 **“찬송하리보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 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을 때 만나게 됩니다. 환난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모든 일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에 구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야곱의 허리

출 1:1-7

1장 2016. 11. 16일 설교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구성 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즉 언약의 연결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 5:13-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사백 년 동안 그들을 섬기며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시고 아브라함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세워진 언약이고 그 언약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언약의 연결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가장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말할 때마다 다가오는 의문은 '하나님은 왜 굳이 언약이라는 방식을 일을 하시는가?' 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도 생각해 보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을 이방에 객이 되게 하셔서 그 나라를 차지하고 자자손손 그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 라면 아랍의 가족을 그곳으로 이주하게 하시는 일이 타당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객이 된 곳에서 사백 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여 큰 재물을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나오게 하실 것이 라면 아예 처음부터 이주하지 않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큰 재물은 굳이 이방에 객이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언약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하나가 인간에게는 불필요하고, 불리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풍요와 복지를 위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약이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시작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시간적 간격은 약 35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담, 즉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셨

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이 없기에 침묵의 기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은 자연적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아래 되어진 일을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자연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섭리를 외면하고 눈에 드러난 것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연적 성장으로 보일 뿐이지 배후에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350년 동안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게 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세상의 되어진 일을 바라보는 시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는 자연적인 것도 없고 우연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선지자가 부름 받아 일하는 구약시대나 사도들이 부름 받아 일하는 시대와는 다르다고 생각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로서의 시각적인 기적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다만 관념에 자리한 신으로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 피를 믿는 자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외부적인 조건이나 체현, 상황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의 여부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얼마든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게 됨으로 애굽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은 5절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칠십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는 이 구절에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자손을 무엇 때문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엉덩이 위 부분의 허리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압박감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에 의해 어긋난 허벅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본문의 허리와 천사가 친 허벅지가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 35:10-11절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고 말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허리는 고통의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뼈가 어긋난 신체적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무너진 것으로 인한 고통을 뜻합니다. 따라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힘이 무너지는 고난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절게 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것도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힘이 무너진 것을 경험한 자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서의 장자권을 사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자 하는 것과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고 리반의 집에서도 자신의 술수로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힘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야곱이 천사로 인해서 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리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말은 야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에 의해 언약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처럼 힘을 믿고 힘으로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힘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의지하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힘과는 무관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힘을 주실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힘과 권세로 죽음에 붙들린 우리를 구속하셔서 생명의 나라에 있게 하시는 분으로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인정하는 힘을 위해 예수를 찾은 것은 믿음이 아니며 언약 백성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힘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것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소식

1.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모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신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할 일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2. 오늘 오후 5시에 낙원로교회당에서 집사장립과 권사임직식이 있습니다. 행사 참석관게로 오후예배는 1:30분에 시작합니다.
3. 캄보디아의 흥수 지역은 물이 빠져서 피해상황을 파악 중인데 여름옷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입지 않은 여름옷(여름, 아이 상관없음)이 있으면 교회로 가져오시면 모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총꽃나무

예배시간안내

예배모임	예배시간
주 일 오 전	11:00
주 일 오 후	2:30
수 요 일	7:30
주 일 학 교	1:00

주일오전예배

11:00 인도 : 신윤식 목사

독상기도 다 할 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44장
 교 독 문 105(감사절1)
 기 도 조규현 장로
 찬 송 429장
 성경봉독 겔 43:6-12

● 성전의 법(103강)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262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1장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이성희 장로

주일오후예배

13:30 인도 :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255장
 기 도 김영석 집사
 찬 송 장
 성경봉독 살전 5:16-18

● 믿음과 하나님의 뜻(믿음91강)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장
 주기도문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이애림 집사

수요일예배

19:30 인도 : 신윤식 목사

출애굽기 강해 2강